

新心理學說과 맑스學說의 出發點 (一)

金一線

只今에 書肆의 店頭를 光彩있게 裝飾하고 잇는 것은 精神分析學에 關한 著書다. 新心理學의 彗星의 出現이다. 이것은 偶然이 아니다. 知識의 黎明期 暗黙한 天心에 眞正한 眞理의 究明을 보내는 億萬曙光의 出現이다. 眞正한 研究道理이다.

그에 어셔한 特質이 잇서서 그와 갓흔 現象을 惹起하게 되는가? 지금까지의 心理學,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精神科學의 研究 領域에서는 일즉이 發見치 못하든 一種 變態的 內容에서 浮現한 것이다. 그럼으로 新心理學은 變態心理學이라고 하고 舊心理學을 常態心理學이라고 할 수 잇다. 이 變態的 內容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는 別다른 것이 아니다. 患者의 原因이 患者 自身の 內容에 潛在한 바 그 內在我(Inner self)의 說明에 잇스니, 그는 卽 慾望滿足을 要求하는 原動이라는 것이니, 行動은 行動하는 바 그 自身에 根原함시오 決코 機械와 가티 刺激에 反應하는 바 機械的 存在가 아니라는 點이다. 常態心理學에서는 行動의 原因을 環境에서 求하얏다.

이것이 그의 特質인 同時 兩者의 分岐點이며 根本的 差異點이다. 卽 刺激--反應作用에서 떠나서 살갓다는 우리들의 慾求, 行動에 吾人의 興味가 옮겨왔다는 事實이다.

그리하야 이 行動의 出發點은 決코 그가 Soul이 아니다. 機體의 代謝機能에 因하야 解放되는 바 Energy이다. 嚴格하게 말하자면 그는 物質의 作用이다. 物質과 作用은 分離할 수 업다. 物質이 根本되어 그에서 내려나는 作用이다. 이에 우리는 心理活動의 完全한 基礎를 把持할 수 잇다.